

특별기고-고유한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관계 단절되면 남북 모두 부담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분단정권을 수립한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시대'(1970년대 초까지), '대화 없는 대결시대'(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화해협력시대(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대립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 등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분명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남북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당국대화를 지속하면서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력을 확대해 나갔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여 동안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점차 대결적 냉전사고로부터 벗어나 민족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인식구조가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남과 북의 사회 내에 남아있는 남북대결시대의 논리와 정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남북에서는 북한변화여부 논란, 대북지원관련 '피주기' 논쟁 등으로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기도 했다. 북측에서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4선언을 채택하고 정권을 초월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모색했다.

남북관계 발전 추세로 보면 화해협력력을 제도화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은 관계조정에 실패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6·15와 10·4선언은 사문화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았음으로써 남북관계 재설정 첫 단추를 꿰지 못했다. 상대를 부정하는 남북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북측은 버렸다. 식량

난 등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남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차단됐다. '북한=주적' 개념이 다시 부활하는 등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민군합동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남측 정부가 남북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측에 돌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봉쇄조치를 전면화하고 있다. 남측의 대북차단조치에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다. 남한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밀착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친중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원부족시대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은 중국의 군사안보적 지원과 경제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례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위기 이후에 국면전환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버마 암살폭파사건 이후인 1984년에 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남북 국회 예비회담, 체육회담, 교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등 이른바 '제2대화시대'라 부를 만큼 각종 대화와 교류가 이뤄졌다.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이후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1998년 8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광명성 1호,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1999년 가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페리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전례도 있다.

북한은 전통적인 협상전술의 하나로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을 꾀했다. 역대 남한 정부들도 장기적인 남북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위기 이후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9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 "지금(북한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와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남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년 전 '냉전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는 냉전 패러다임이 아닌 역사발전추세에 맞는 스마트파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려면 대북관과 정세관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 '불량국가론'과 '급변사태론'이 지배하는 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냉전패러다임 버리고 스마트파워 모색해야

5월 26일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 추방에 이어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강행하면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여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될 경우 남과 북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압력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 차단조치로 북에 줄 경제적 봉쇄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세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론제의 부각이다. 경험차단으로 북이 입을 피해보다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한국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북한은 위기를 조성해서 남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과도하지만 큰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을 펼친 것

〈불교평론〉특별기획 한국전쟁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

전쟁으로 불교 위상 하락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제 43집(2010년 여름호)에서 한국 전쟁 60주년 특별기획으로 △한국전쟁과 종교지형 변화(윤승용 한국종교학회 이사) △한국전쟁과 불교계(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훼손(도운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팀 선임연구원) △6·25소설 속의 불교(유한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등 네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전쟁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네 편의 논문을 정리했다.



군교위원회의 국군불교총신도회가 2005년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령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전쟁 후 불교 ↓ 기독교 ↑

윤승용 한국종교학회 이사는 "해방 당시 6대 종교로 대표됐던 한국 종교지형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불교와 유교 등 전통종교는 분열과 침체를 겪었다. 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종교의 쇠퇴라는 종교지형의 큰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개신교가 득세하고, 불교 등이 쇠퇴한 원인을 가장적인 종교와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종교 대신 개인적·여성적·도시 중심의 종교가 각각 받는 등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이사는 "당시 분단정부가 (종교에 대한) 국가 중립성의 원칙을 깨며 개신교에는 선교의 장이나 물적 지원을 했다. 반면에 불교나 유교에는 종교 내부의 신앙 문제에 정부가 간섭했다"고 진단했다.

윤승용 이사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급신장은 종교내적 또는 문화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결과가 아닌 분단과 냉전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질곡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혁 매대가 승려 월북 초래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국전쟁 발발을 즈음해 불교혁신을 위해 남한에서 활동했던 승려들이 월북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월북했던 승려들이 서울로 내려와 불교혁신운동을 펼쳤던 사실에 주목했다.

김 연구교수는 "해방 후 전국불교도총연맹(조선불교총본원)은 불교혁신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던 혁신단체였다. 전국불교도총연맹은 다른 혁신단체인 불교청년당과 1948년 4월 19-26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등에 참석한 것이 월북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당시 보수적이었던 교단과 혁신단체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했다. 이 간격은 각자의 정체성, 생존권이 달려 있어 타협할 수 없었다"면서 "평양에서 열린 수차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혁신단체 승려들은 좌익으로 고발 당했고 이 때문에 북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불교 혁신론은 불교의 근본, 지향을 논하며 초기불교의 모습을 검토하고, 식민지 불교를 성찰했다. 특히 불교 현대화의 방향과 노선 등에 많이 고민했다"고 소개했다.

전쟁으로 사찰 350여 곳 폐해

도운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57곳, 강원도에서 25곳, 전라도에서 81

곳, 제주에서 35곳, 북한 지역에서 140여 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문화유산 훼손은 막대했다. 특히 북측이 아닌 한국 근근에 의한 사찰 피해도 컸다"고 강조했다.

민족통합 원리, 불교에 있다

유한근 교수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불교소설이 드문 이유를 "불교가 초역사·초시대성을 지닌 종교여서 범속한 문화과는 원초적으로 융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유한근 교수는 "불교문화는 현세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문화관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 문화(소설)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민족의 분단 현실에서 통일성 회복을 위한 민족통합 원리를 불교문화에서 찾자"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연수교육과정 강좌 안내

【속학 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장소
전법향상과정	설법능력향상과정	김이문(윤항감독, 서울대음대출)	8.26~8.28(2박3일)	8.16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수련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일감수님(금산사 수련원장)	9.5~9.7(2박3일)	8.2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신도상담지도과정	황수경(동국대 선학과강사)	9.30~10.2(2박3일)	9.20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음악과 법회운영	도영수님(불교음악연구소장) 외	11.25~11.27(2박3일)	11.1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경영일반과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태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	8.23~8.25(2박3일)	8.1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농지임야활용	김태원(공인회계사) 외	9.13~9.15(2박3일)	9.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건축이론과 실습	지용한목회교, 현고스님(전남문화재단연구원이사장) 외	9.28~9.30(2박3일)	9.18	40만원 (재료비포함)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문화재콘텐츠활용과정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연구소) 외	10.3~10.5(2박3일)	9.2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교과과정	사찰경영지도과정	김용철(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외	10.25~10.29(4박5일)	10.15	35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전법법요 특강	종묵스님(해인사 전 강주)	9.2~9.4(2박3일)	8.22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선요 특강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학장)	9.9~9.11(2박3일)	8.30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초기불교	각육스님(화엄학원 교수)	10.4~10.6(2박3일)	9.24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문화실기과정	간화선수행의 이론과 실제	월암스님(한신사 용성선원장)	10.9~10.13(4박5일)	9.29	30만원	한신사 용성선원(경북 문경)
	티벳불교의 힘	최모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10.15~10.17(2박3일)	10.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서장 특강	지오스님(범어사승가대학장)	11.3~11.5(2박3일)	10.2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일제특 특강	무비스님(동국역경원장)	11.11~11.13(2박3일)	11.1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문화실기과정	불교와 심리치료	서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1.13~11.15(2박3일)	11.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경덕전통 특강	지안스님(승가대학원장)	11.24~11.26(2박3일)	11.14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육조단경 특강	실우스님(법안사 선원장)	12.2~12.4(2박3일)	11.22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음식	사찰음식본초회	11.8~11.10	10.28	30만원 (재료비포함)	추후공지

【통학 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장소
전법향상과정	불교의례의식과정	정각스님(동국대 겸임교수)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8.8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세상변화와 불교역할	이언오(삼성경제연구소 전무)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8.8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사찰경영일반과정	온라인모바일세상읽기	김종민(이미지출판사 대표)	10.7~11.11(주1회) 매주 목요일	9.27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복지·교육·사회복지사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추후공지	-	-	15만원	추후공지
불교교과과정	불교생협만들기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외	8.17~9.14(주1회) 매주 화요일	8.7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불교의 논으로 본 생명과 삶	우희중(서울대수의학과교수)	10.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0.19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불교문화실기과정	한국의 종교, 그 현황과 미래전망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외	10.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0.19	15만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불교지화	김태연	8.18~9.15(주회) 매주 수요일	8.8	30만원 (재료비포함)	한국예식문화연구원
	불교회화 (15명 선착순 마감)	(공중상화연구소 소장)	매주 수요일	-	40만원	동국대학교(서울)
	불교회화 (15명 선착순 마감)	김창균(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외	8.26~12.16(주1회) 매주 목요일	8.16	40만원 (재료비포함)	정각원

【기타 교육과정】

과정	강좌명	일정	진행
사회복지봉사과정	10월 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종단 산하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 본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불기2554(201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웅